

푸드뱅크 · 마켓 이용자 전면 변경



▲내년 3월부터 제주도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가 전면 변경되고 이용기간도 1년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찾은 이용자들의 모습.

복지부 지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차상위 등 우선 지원

1년 단위로 이용자 변경...읍·면·동에서 대상자 추천

내년 3월부터 제주도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가 전면 변경되고 이용기간도 1년으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9일 도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담당자, 행정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하반기 기부식품제공사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 변경은 보건복지부의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도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가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에서 긴급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바뀐다.

이는 정부 지원이 미흡해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된다. 기부식품 제공기간도 1년으로 정해졌다.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다. 종전에는 기부식품 제공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현행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이용자는 내년 2월까지 기부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내년 3월부터 이용 대상자가 전면 변경됨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시를 통해 이용자를 추천받은 후 이들을 대상으로 1년간 기부식품을 제공하게 된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별 이용 가구수는 제주구세군기초 푸드뱅크·북부기초푸드뱅크·서귀포기초푸드뱅크 각 150가구, 사랑나눔 푸드마켓 1500가구, 행복나눔 푸드마켓 680가구 등 총 2630가구다. 제주도와 푸드뱅크 등은 기존 기부식품 이용자에 대해 3개월여 간의 이용자 변경 안내 등을 통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푸드뱅크는 식품제조·유통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식품을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 배달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기부식품을 선택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현재 도내에는 광역·기초 푸드뱅크 4개소, 푸드마켓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이용 관련 문의는 광역푸드뱅크(702-3784)로 하면 된다.

올해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특별생계비 등 7억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가정의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국비 사업 외에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6개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기초생활수급 급여가 중지된 가구 등 저소득층 180가구에 특별생계비로 1억 47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한 179가구에 820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1058명에게 교복 구입비 3억 7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41가구의 집수리 사업비로 3700만원 등을 지원했다. 제주도가 올해 10월까지 저소득층을 위해 국비보조사업 외에 자체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7억 1400만원에 이른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아동학대 예방 학술세미나 개최
시설 탐방-여서원
- 사회복지소식 4·5면
방글라데시에 희망학교 짓기
지역아동센터, 생명평화 음악회
- 오피니언 6면
칼럼 ·기고
- 특집 7면
성폭력 2차 피해예방 토론회
- 기획 8면
이웃사랑 자원봉사-명예의 전당
사랑의 식품기부-한라배야채



12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2013년 1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jtnws@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계시판 알림-행사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 설 · 단 체 명	행 사 명	주 요 내 용	일 시 · 장 소	문 의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전문화 교육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상담기술	12일 09:00~13:00 한국리더십센터제주지부	753-274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12 취업자 송년행사	우수사업체 및 근로자 표창, 사례발표 등	5일 19:00 로얄호텔 10층 연회장	702-0295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아두 2012 가정위탁을 말하다	올해 주요사업 보고, 감사패 및 장학금 전달	29일 14:00~16:0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747-3273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사랑의 날	2013년 달력만들기	21일 19:00~21:00 중앙신탁 3층 센터	725-8005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사진찍기, 홍보물 배부 등	15일	712-139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인증관리사업 안내, 인증관리 DB시스템 활용 등	6일 14:00~18:00 협의회 2층 삼다수홀	702-3784
	비영리법인 세무교육	사회복지법인과 세금, 2012년 연말 정산 등	13일 14:00~17:00 협의회 2층 삼다수홀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활성화해야”

남진열 교수, 실태조사 결과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
“道·교육청 등 유관기관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해야”



▲11월 24일 제주한라대학교 금호미래관 대강당에서 제8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모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주지회 주관으로 11월 24일 제주한라대학교 금호미래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에서 남진열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2012년 제주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환경 안전 실태조사 결과 및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남 교수가 올해 7월 11~16일 도내 초·중학생 1559명으로 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환경 안전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형별 아동학대 경험률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각각 54.7%, 54.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방임 16.3%, 성학대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신체학대 73%, 정서학대 59.5%, 방임 19.7%, 성학대 4.1%)와 비교하면 유형별 학대 경험률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학대 가해자를 살펴보면 2008년 조사 때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가해자 중 어머니의 비율이, 성학대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신체학대와 성학대에서는 아버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학대와 방임 가해자로는 어머니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아동과 청소년은 자기방어와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데다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주위에서 이를 발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주도 아동학대에 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도교육청과 어린이집, 아동보호 관련 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수요자 중심으로”

제주형 사회복지 모델개발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제주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6일 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제주형 사회복지서비스 모델 개발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수행한 제주발전연구원원은 이날 최종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제시했다.

용역팀은 우선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복지전달체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복지로 차상위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중복과 누락, 복지병 증가, 맞춤형서비스 지원 한계, 사회복지 전달인력 전문성 부족 및 업무 과중 등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용역팀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민관협력형 체계와 복지협의체 중심형 체계 등 2개안을 제시했다.

민관협력형 체계는 권역별 복지센터 중심의 전달체계로,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전문성 제고와 지역인적자원 활용에 따른 재원절감, 중복지서비스 단절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인력확충에 따른 예산 부담과 시행초기 수요자 혼란 등은 단점으로 꼽혔다.

협의체 중심형은 읍면동 단위 협의체 중심의 전달체계로, 숨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주도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된 반면 체감도가 미약하고 책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용역팀은 또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정책 연구 개발이 필요한 만큼 사회복지 관련 전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장으로 사랑 나눠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환)가 주최하고 제주은행은 행장 허창기와 신한금융그룹이 후원한 ‘2012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11월 17일 제주도시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은행·신한금융그룹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도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정성껏 만들고 있다.

제주시, 저소득층 겨울나기 지원

제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와 난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현장 점검과 복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기 가정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긴급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

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될 경우 주거비 지원기간을 종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또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내 독거노인 2473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로당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제주시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읍·면·동장, 통·리장, 자원봉사자 등 공공 및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 사회복지 예산 20%대 진입

道, 내년 6828억원 편성...전체예산의 20.3%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20%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11월 12일 올해 본예산보다 9.4% 늘어난 3조3667억원의 2013년 예산안을 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사회복지예산안은 올해 5708억원보다 1120억원 늘어난 6828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5%에서 20.3%로 1.8% 포인트 상승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에 1705억원, 만 3~5세 누리과정 교육료 지원 165억원, 영유아 교육료 965억원, 공공보육시설 기반 확충 및 보육시설 지원 사업에 101억원, 친환경농산물 급

식 및 아동급식 지원 248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 60억원, 장수수당 47억원 등이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시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에 출석,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채해에는 재정지출 증가액의 30% 이상을 사회복지에 투입해 사상 최초로 복지재정 2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셋째아이 이상 자녀 출산시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또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늘리고 가정 ‘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을 통한 여성들의 권익신장, 양성평등 프로그램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독거노인 안전관리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을 맞아 도내 독거노인 1만2877명 중 보호가 필요한 3650명을 대상으로 상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돌보미가 매주 2차례 직접 방문하고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노인돌보미 인력을 100명에서 12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각 행정시별로 일시 거주한 가능한 양도원 등 11곳을 임시대피소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취약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29명에 대해서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분류해 내년 2월까지 노인돌보미를 통한 안전확인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인돌보미를 추가 채용하고 수시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설탐방

▶ (61)애서원

미혼모자를 위한 따뜻하고 편안한 쉼터

출산·육아지원 등 도내 유일한 미혼모자 보호시설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정... “사회적 인식개선해야”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간직한 미혼모들,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미혼모들에게 출산과 양육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미혼모들의 안전한 출산과 산후 조리는 물론 육아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따뜻한 쉼터를 제공하는 시설이 있다. 제주지역에서 유일한 미혼모자 보호시설인 애서원(원장 임애덕)이다. 사회복지법인 청수가 운영하는 애서원을 11월 22일 찾았다.

“너무 어린 나이였죠. 제가 애서원에 입소할 당시 나이가... 처음엔 나이도 어린 데다 혼자 아기를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에 차다리 입양을 보낼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은 다행히 아기 아빠를 만나 잘 살고 있어요. 선생님들, 보고 싶습니다.”

한 때 애서원에서 생활했던 A씨가 애서원 홈페이지 방명록에 남긴 글이다.

낙태 대신 출산, 입양 대신 양육을 선택한 엄마들이 있다. 저출산 시대에 바수를 받아도 모자랄 텐데 이들은 오히려 사회적 편견과 비난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간다.

바로 미혼모들 얘기다. 단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는 물론 가족과 친척의 시선도 싸늘하기만 하다.

미혼모들은 저마다 가족과 사회에 융화되지 못한 아픔을 갖고 있다. 이들

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원망했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제주도내 유일한 미혼모자 보호시설인 애서원에는 저마다 절절한 사연을 간직한 미혼모 21명과 이들이 낳은 아기 19명이 생활하고 있다.

애서원에 위소한 미혼모들은 10대가 주를 이룬다. 입소 자격은 미혼의 여성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이 안 돼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이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필요한 경우 6개월 더 머물 수 있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위치한 애서원은 지난 2004년 6월 문을 열었다.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에는 의무실, 상담실, 회복실, 프로그램실, 다목적

실, 휴게실, 도서실, 정보화교육실, 스포츠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본적인 숙식 제공은 물론 미혼모들의 안전한 분만을 돕고 산후조리와 육아 지원,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할 경우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양 절차를 지원해 준다.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미혼모들의 사회 적응성과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미즈·리본공예를 비롯 피부미용, 홈패션, 양재 등이 그 것이다. 미혼모들은 이러한 직업 교육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간다.

특히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제주도교육청과 청소년 한부모 학생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 중·고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게 된다.

임애덕 원장은 “미혼모들은 가족의 불똥을 받지 못한 채 사회적인 냉대까지 감수해야 하는 등 상처로 얼룩져 있다”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이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773-2010



‘아름다운 동행’ 자원봉사자대회 열려

‘201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가 11월 15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1 도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내 자원봉사자와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울간병봉사회와 청솔적십자봉사회 등의 민요·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및 우수프로그램 시상, 결의문 채택,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제주두레봉사단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까’란 제목의 희극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부대행사로는 천연화장품 체험, 재활용 비누 만들기 체험,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 헤어



작품 전시, 건강보험 상담, 헌혈 등의 홍보부스가 운영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울간병봉사회를 비롯 16개 단체와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4학년 변유경씨 등 22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 탐모리봉사대와 개인 8명이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용머리에술단 단원 오이균씨 등 6명은 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장 표창을, (주)제주은행봉사단 김종신 대리 등 6명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성폭력 범죄 신고제 폐지

피해자 고소않거나 합의해도 처벌

앞으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제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안과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과 관련된 5

개 법률 개정안이 11월 22일 국회에서 모두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를 유도하는 등 2차 피해가 심했다.

또 성인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여전히 신고제로 남아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고제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전면 폐지됐다.

처벌도 강화돼 아동과 청소년 대상 강간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강간의 객체(피해자)는 기존 ‘부녀(婦女)’에서 남자 아동·청소년으로 확대됐다.

장애인 유권자 투표편의 지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기표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투표 편의를 지원한다.

도선관위는 장애인이 거소투표를 신청한 도내 10여개 장애인거주시설과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12월 12~15일까지 거소투표를 지원하고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 휠체어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으로 장애인들이 투표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선거 전날인 12월 18일까지 중증지체장애인 등이 보조인을 신청하면 수화통역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한편 도선관위는 제주지역 227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소마다 투표안내도우미 2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방글라데시에 ‘희망학교’ 짓기

월드비전 제주지부, 사랑의 동전발 나눔축제 개최
동전 모아 아프리카에 이어 두 번째 학교 신축키로

아프리카에 이어 방글라데시 빈곤 지역에 희망학교를 짓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 제주지부(지부장 김관호)는 월드비전 제주특별자치도총지회(총지회장 김정서),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경식)와 함께 11월 8~11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열린 ‘제12회 최남단방어축제’ 행사장에서 ‘제2회 사랑의 동전발 나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동전발 나눔축제는 방글라데시 자한푸르 지역에 고등학교를 짓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단체는 11월 9일 행사장에서 동전발 나눔축제 선포식을 통해 축제 참가자

와 도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동전 다시쓰기의 일환으로 동전 모으기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장바구니와 동전지갑, 올레손수건 등을 무료로 나눠줬다.

월드비전 제주지부는 자한푸르 지역에 고등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5200만원을 모금 목표로 잡고 있다.

이 모금액은 1934년 지어져 낡은대로 낡은 교실 5개와 화장실 1개, 식수시설 1개를 신축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월드비전 제주지부는 지난해 동전 모으기 캠페인 등을 통해 모은 돈으로 아프리카 말라위 지역에 치무부초등학교



▲월드비전 제주지부 등은 11월 9일 대정읍에서 열린 제12회 최남단 방어축제 행사장에서 사랑의 동전발 나눔축제 선포식을 가졌다.

교를 신축하는 제1호 희망학교 짓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올해 4월 첫 삽을 뜬 이 초등학교는 오는 2014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김관호 월드비전 제주지부장은 “지구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희망학교 짓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 모여면 큰 희망이 된다”고 말했다. 후원 문의=월드비전 제주지부(725-6050)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개관 6주년 기념 행사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은 11월 3일 개관 6주년을 맞아 다문화한마당잔치 및 구좌사랑·행복찾기 음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다문화 축제에서는 다문화 음식체험을 비롯 베트남 전통모자 만들기, 만국기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또 음악회에서는 구좌읍 지역 음악동아리와 인디밴드 ‘연금술사’의 재능기부로 공연이 펼쳐져 문화소외지역인 구좌읍 주민들에게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분노조절 프로그램 운영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10월 17일 센터 교육실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동들의 민감한 정서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마련됐다.

아동들은 이날 감정카드를 이용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게임을 통해 분노를 조절하는 10가지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1004봉사단 합동 위촉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는 11월 3일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1004 지역사회봉사단 합동 위촉식’을 갖고 성일예수당 등 도내 14개 봉사단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전달과 함께 봉사회별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봉사활동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식/마/당

정혜재활원, 아주 특별한 가족여행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10월 22~24일 2박3일간 ‘아주 특별한 가족여행’이란 테마로 남해안 여행을 떠났다.

재활원에 거주하는 이용자와 그 가족, 직원들은 남해안 한려수도인 여수, 순천, 통영 일대 관광지를 둘러보고 남도 특유의 계절 음식을 맛보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혜정원 아가의집, 꿈드림 지원사업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은 본사랑 장애아동 꿈드림 지원사업으로 ‘난타와 밴드의 만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설 이용자들의 여가활동과 취미활동의 폭을 넓히고 음악활동을 통해 습득한 기능을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해 발휘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숲아동센터, 테니스 동아리 운영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테니스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아동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꿈쟁이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테니스를 치며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운동을 통해 체력도 다지고 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 제주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발달장애를 가진 8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역할극, 그림그리기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기결정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애인보조공학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는 11월 3일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장애인 보장구를 세척해 주고 휠체어를 수리해 줬다.

이에 앞서 11월 1일 도평초등학교에서 열린 ‘책 축제’에도 참가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전시체험 등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케어하우스, 자원봉사자와 한라산 등반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김정현)는 10월 27일 ‘해늘이와 아름다운 사람들의 추억만들기’란 주제로 자원봉사자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케어하우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온통 단풍으로 물든 한라산을 등반을 하며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지역 청소년에게 '쉼·배움·꿈'을

1318 해피존 더블어숲지역아동센터, 생명평화 음악회
재능기부 통해 다양한 공연 선보여...관객들 '호응'



▲1318 해피존 더블어숲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이 공동 주관한 '생명평화 음악회'가 11월 3일 성공회 제주교회에서 열렸다.

1318 해피존 더블어숲지역아동센터(센터장 조순옥)와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생명평화 음악회'가 11월 3일 성공회 제주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18 해피존 더블어

숲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기금 모금을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에서는 제주어 지킴이 '뚜림 브라더스'가 '구렁기 겁데기' 등의 곡을 제주어로 불러 관객들의 흥을 돋웠고, 아카펠라연구회 소속 혼성아카펠 그룹은 간디학교 교가인 '꿈꾸지 않으면'을 합창해 박수갈채

를 받았다.

특히 1318 해피존 더블어숲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고래가 그랬어' 등의 곡을 불러 눈길을 끌었다.

이날 무대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 이들의 공연으로 꾸며져 그 의미를 더했다.

한 참가자는 "많은 사람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정말 흥겨웠다"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1318 해피존 더블어숲지역 청소년센터는 '쉼·배움·꿈'을 기본철학으로 삼아 지역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질 높은 복지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2월 대한성공회 제주교회 유지재단 부설로 설립됐다.

후원 문의=1318 해피존 더블어숲지역청소년센터 조순옥 센터장(010-3060-3690)

애덕의 집서 '사랑의김장나눔' 행사 열려

SK에너지 (주)제주물류센터와 제주도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주관한 '2012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가 11월 21일 제주애덕의 집 내 실외스포츠허브에서 열렸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도내 10여개 봉사단체와 군인 150여명이 참여해 소외계층에 나눠줄 김장을 담그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애덕의 집 직원들도 팔을 걷어붙여 직접 김장을 담그며 일손을 보탰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4000포기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됐다.

현성훈 애덕의 집 원장은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오늘처럼 사랑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빈곤가정 아동에 문화체험 기회 제공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즐거운 토요일 행사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은 지역 내 결손빈곤 가정아동을 대상으로 11월 17일 '토요아카데미 즐거운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 여섯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는 생태체험, 전통문화체험, 서커스 관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 아동들은 오름탐방, 숲체험, 우물안 들여다보기, 미생물관찰하기 등 생태체험을 하고 비석치기, 투호, 고리던지기 등 전통문화체험을 하며 모처럼 즐거운



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서커스월드를 방문해 오토바이 쇼를 관람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TV에서만 보던 서커스 묘기를 직접 보니 너무 신기했다"며 "오름을 오르며 곤충을 관찰했는데 곤충들이 아프지 않도록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장복, 새움터 평생학습축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11월 29일 '복지관에서 배우는 보람, 나누는 기쁨, 커가는 희망'이란 주제로 '2012 새움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평생학습축제는 사회참여 활동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력 및 성취감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돼 온 새움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함께 전시부스가 운영됐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올해 제주시교육청 지원사업으로 북아트교실, 농어촌지역 장애인 한글교실, 뇌병변장애인 운동교실 등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역아동센터 '비전 페스티벌' 개최



72개 센터 1500명 참가

제주특별자치도, (사)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이 주최하고 (사)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주관한 제1회 제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문화축제 'Vision Festival(비전 페스티벌)' 행사가 11월 17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72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 학부모, 센터 종사자 등 1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공연마당에서는 10여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이 출연해 합창, 발리댄스, 관현악 합주 및 중창, 댄스, 난타, 오카리나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1월 식품 기탁자



▲김정심씨=쌀 50kg 및 생필품 ▲금강축산유통=육류 193.5kg ▲김치원=김치 90kg ▲남양유업 제주남부대리점=유제품 1300개 ▲뉴월드마트서사리점=배추 60포기 ▲빵따아모=55봉 ▲삼다유통=삼다수(2Lx6입)300팩 ▲서문식품=두부 432모 ▲손뜻모아봉사단=떡국 120kg ▲신농영농조합=장아찌류 100kg ▲아산재단=쌀 200kg ▲이든이네=건어물 3kg ▲이에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채소 5kg ▲제주마쌈=조기 20상자 등 2658만원 상당 물품 및 성금 70만원 ▲제주보리촌=보리빵 94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김치 15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500mlx20입)150팩 ▲(주)일해=감귤 및 한라봉음료 3000개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209봉 ▲제주은행=성금 200만원 ▲무기명 성금=5만4000원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컨퍼런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제주아동가족문제연구소와 함께 11월 21일 제남아동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제2회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케이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피해아동 문제행동개선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정서학대 피해아동 자존감 향상을 위한 심리치료 사례연구 등을 주제로한 발표가 이뤄졌다.

학대피해 어르신 위해 계란 기탁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이육기 대표가 최근 피학대 어르신과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해 달라며 계란 30개들이 200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한 계란은 제주학대피해노인지원센터를 비롯 도내 각 지역 독거노인과 피학대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이 대표들은 지난해에도 계란을 기탁한 바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2년 10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제가결연후원	280,000	28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550,000	550,000
복지사업후원	1,030,000	523,000
푸드마켓후원	3,750,000	1,090,0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칼럼

헌신을 강요하는 문해교육



한 영 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사회변화는 고도화와 세분화를 의미한다. 과거의 단순 사회체제가 갈수록 복잡한 형태로 진화된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수많은 지식이나 정보들이 창출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만큼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로 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를 흡수하고 자신의 것으로 재창출하는 능력이야말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다.

교육격차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지식정보사회 속에서도 글쓰기, 셈하기, 또는 출판물을 읽고 비판적인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빠른 기술개발로 인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보접근에 한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

이면에는 또 다른 교육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글쓰기, 셈하기를 제대로 못하는 제주지역 비문해자를 보면 2005년 기준 3만6035명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중학교 의무교육과정까지 이수하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7만8340명이다. 이는 당시 15세 이상 제주도내 전체인구 41만4395명의 18.9%를 차지하는 규모다. 최근에는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문해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로 인해 결혼이주 여성,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가족들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12년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2158명에 이른다. 2007년 948명이었던 것이 5년만에 무려 2.3배나 늘었다. 해마다 평균 15.8%씩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 필리핀 순이다. 이들 역시 제주의 문화는 물론 언어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 상당수는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기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교육시설이나 운영은 뜻 있는 독지가, 비

영리 민간단체, 종교시설 등에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지역에서도 현재 자원기관, 종교단체, 복지기관 및 야학 등에서 헌신적인 사람과 사명감을 가진 무명의 봉사 교사들에 의해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책임져야 할 교육 복지 문제를 민간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간의 희생만 강요해선 안돼

반면 국가 등 행정기관은 이를 위한 미미한 운영비 지원에 그치고 있다. 또는 문해교육 거점기관이나 정보화교육기관 선정 등을 통한 예산지원이나 공모사업 정도다. 이마저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은 소수에 그치고 대부분 시설은 운영자의 헌신적인 봉사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기초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 우선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민의 기본권이다. 정규교육과정만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로 정규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가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과제를 민간에 맡겨 헌신적 노력만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모든 교육이 평생교육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해교육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기고

캄보디아 유니세프 봉사활동을 마치며



김 순 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TV,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한 번쯤을 들어봤을 유니세프.

유니세프는 1946년 설립되어 전세계 개발도상국 190여 개 나라에서 인종, 국적, 이념의 벽을 넘어 모든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전하는 유엔기구로 영양 보건, 식수보급과 위생, 기초교육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유니세프를 통해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금전적 후원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서귀포시는 2011년 11월부터 유니세프 협력도시로 협약을 맺고 유니세프 사업 동참 및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니세프 사업현장 방문을 통한 실질적인 봉사체험을 위해 캄보디아 유니세프 협력도시 현지 체험단을 구성하고 봉사활동에 참가를 하게 되었다.

5월부터 헌옷, 학용품, 생활용품 등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20상자가 넘는 생활용품들을 갖고 10월 드디어 캄보디아로 출발하였다.

현재 캄보디아 지역 내 유니세프에서는 1000개 이상의 마을과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 중으로 보건, 교육, 안전한 식수와 하수설비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넓은 예방접종, 출산 서비스,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의 양질의 교육 지원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18명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유니세프 봉사 체험단은 현지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활동 중인 NGO 단체와 연계하여 어린이 위생·간호 봉사, 학교 놀이터 정비, 정원관리 봉사를 하였다.

나는 어린이 위생·간호 봉사팀으로 시내에서 조금 더 벗어난 마을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머리를 감겨줬다. 물도 부족하고 목욕용품도 부족하여 한달에 한번 겨우 머리를 감는다는 아이들. 깨끗이 씻겨준 아이들의 미소는 캄보디아의 하늘만큼이나 맑았다.

비록 아직 위생관념이 없는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준다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씻기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할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어 보았다.

2003년도에 한 NGO 단체를 통해 2주간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 KOICA, NGO 단체 방문과 현지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다.

그때도 느꼈던 것이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그 순간의 배고픔을 없애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정심으로 주는 1달러는 그들에게 현재의 배고픔을 벗어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 1달러를 주는 것보다는 자립을 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NGO 단체에서 했던 종지은행사업과 같이 쌀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쌀 종지를 배급하고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활동들이 그들에게는 더 필요하다.

누구나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유니세프와 같은 유엔기구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와 같은 NGO 단체 등 어떤 단체를 통해서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지만 선뜻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시작되는 겨울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 보았으면 한다.

기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아이들의 ‘보조바퀴’



권 미 영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와 인연을 맺은 것은 올 여름 학교수업의 일부이기도 한 실습과정을 하면서다. 실습과정 속에서도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 같이 놀아주고 보듬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러던 중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신나게 놀자! 아이들아, 아이들아’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드디어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행사장소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새 신을 신은 것 마냥 가볍고 경쾌했다. 행사 장소에서 만난 위탁부모들은 한결같이 밝은 얼굴로 웃음을 띠고 있었다. 체육관 이곳저곳에서는 가족 사진을 찍고, 조만간한 얼굴과 고사리 같은 손에 페이스 페인팅을 그리고 있었다.

첫 경기 신발던지기 게임, “선수 나오세요”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로 손을 들고 뛰어가는 아이들. 어찌던 이렇게 티 없이 맑고 예쁘지...

아이들은 한 경기 한 경기에 열정과 끼를 숨김없이 보여주었고 작은 경품하나에도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내 입가에도 미소가 번져갔다.

간식 담당이었던 나는 아이들에게 단연 인기만점 자원봉사자였다. 내 주위를 빙 둘러싸서 간식을 받고 작은 입으로 오물거리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간식거

리를 나눠주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나누어 먹자”라는 말 한마디에 옆에 친구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는 아이들. 아이들이기에 욕심도 부리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한껏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클텐데도 나눔의 마음이 더 크게 보였다.

아이들은 처음 세발자전거를 타기 시작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페달을 서툴게 돌리고, 전진도 느릿느릿하기 일쑤다. 하지만 아이들이 혼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전거의 큰 바퀴를 보조해주는 작은 바퀴 때문일 것이다. 어찌던 가정위탁 또한 아이들에게 세발자전거의 보조바퀴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친부모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때, 위탁부모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친부모를 도와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같이 보듬어 안아주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 피해자 권리로서의 성폭력 2차 피해 예방 토론회

“성폭력사건 형사사법 담당자 전문성 확보 시급”



▲11월 15일 제주YWCA 3층 강당에서 열린 ‘피해자 권리로서의 성폭력 2차 피해 예방 토론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은 11월 15일 제주YWCA 3층 강당에서 열린 ‘피해자 권리로서의 성폭력 2차 피해 예방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성폭력 2차 피해가 상당부분 형사사법 절차를 운용하는 담당자들의 인식과 태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백 소장은 “20여 년간의 법·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30% 정도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폭력 2차 피해란 사건 발생 후 가족, 친구, 언론, 여론, 사법 기관 등으로 인한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의 옷차림, 행동, 반항 정도, 성 경험에 대해 질문을 할 때 성폭력 피해자는 고통스러웠던 피해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당시의 피해를 재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왜 소리지르거나 반항하지 못했는지,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그런 옷차

림을 했는지, 왜 밤늦게까지 술 자리에 있었는지 등 부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백 소장은 그 이유로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전문성 수준과 인식의 문제를 꼽았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근저에는 형법에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던 이념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관한 죄

우 형사사법 절차에서 담당자들이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대하고 사건을 판단하게 될 때 피해자는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수사와 재판은 전담경찰, 전담검사, 전담재판부에 의해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순환보직제와 순환근무제에 따라 자리 이동이 잦은 데다 전담자리에도 성폭력 사건

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입증 받지 못한 청소년 피해자가 출산에 이르게 되거나 수사의 효율성을 명목으로 피해자가 다수 가해자를 한꺼번에 대면해야 하는 등 담당자의 낮은 성 감수성과 비전문성이 이런 2차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 수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할 책임은 국가의 몫”

꼬집었다.

고 소장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그리고 언론의 무차별적 보도로 인해 2차, 3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는 좁은 지역이라 피해자들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고소를 꺼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지구대나 파출소를 이용했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찰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심지어 경찰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여경에게 조사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직원이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여경에게 조사받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담당 경찰로부터 거절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따라서 피해자들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경찰들을 상대로 한 여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깨고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언론 보도 방식에 있어서도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는 자제하고 좀 더 신중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왜 그런 옷차림 했느냐”…피해자 두번 올리는 성폭력 수사 백미순 소장 ‘담당자 인식개선·친고제 폐지해야’ 주장

로 이행되지 못하고 강간과 추행의 죄에 머물러 있는 성폭력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과 그러한 한계를 내면화한 제형사사법체계를 작동시키는 담당자의 낮은 전문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상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수많은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제도 운용의 주체들인 경찰, 검찰, 판사 등의 성 감수성과 전문성이 이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기도 어렵지만 고소를 할 경

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높은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술녹화제도나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등이 담당자의 재량으로 피해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들이 제지되지 않고 실제적 진실발견이라는 이유로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개인정보 유출이 수사 담당자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는 게 백 소장의 주장이다.

게다가 수사가 끝나지 않았

이라며 “국가가 폭력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확대를 조장하고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심어줄 수 있다”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 사건을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2차 피해의 근본 요인이 된다고 친고죄 폐지도 주장했다.

제주여성상담소 고명희 소장은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사례와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연중기획

'이웃사랑 자원봉사'

➔ (10명예의 전당

사회복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주인공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12월 14일까지 대상자 모집

올해로 3회째...모범 봉사자 선정해 등재기념패 증정

제3회 '사회복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주인공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제3회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도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0년 제정, 그 이듬해 첫 수

상자를 배출했다.

추천 대상은 ▲20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 중인 자 ▲인증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만 7년 이상 활동 중인 자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시스템(VMS)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 ▲인증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중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하다 심각한 상해를 입은 자 등으로 이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추천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12월 14일까지이며, 반드시 도내 자원봉사인 인증관리센터 대표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청 양식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u

bokjinet)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공식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등재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심사 결과는 12월 28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추천자에게도 개별 통보된다.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경우 내년 1월 신년하례회 때 등재기념패가 증정된다. 또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로비에 설치된 명예의 전당에 이름과 얼굴사진, 활동내용이 게재된다.

한편 제1회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는 25년간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무려 5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김영순씨(64·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12월 14일까지 제3회 사회복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가, 제2회 명예의 전당에는 24년간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는

물론 저소득가구 접수리 봉사에 앞장서 온 원석철씨(50)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사랑의식품을 이웃과 함께'

➔ (6)박덕진 한라베이커리 대표



▲20여년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빵을 전달해 온 박덕진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라베이커리 주방에서 정성껏 빵을 만들고 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빵을...

20여년간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직접 만든 빵 제공

푸드뱅크에도 정기 기탁...학생들 위해 '재능기부' 도

20여 년간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빵을 전달해 온 이가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박덕진 한라베이커리 대표(59). 서귀포시 1호광장 인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그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25년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자신이 직접 만든 빵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선행을 펼치고 있다.

제빵 분야의 외길을 걸어온 그가 처음 기부에 나선 것은 지난 1987년.

당시 지역 내 제빵사들로 구성된 '가우봉사회'를 결성한 후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맡아 기르는 제남보육원을 찾아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빵을 만들어 원생들에게 나눠준 게 그 시작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25년간 봉사

회원들과 함께 매월 1차례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맛있는 빵을 전달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부터 제주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 부설 주간보호이용시설과도 인연을 맺어 매주 화·금요일 2차례 정기적으로 빵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에는 부랑인 복지시설인 서귀포시립사랑원을 찾아 자신이 직접 가지고 온 밀가루, 설탕, 계란 등 갖가지 재료를 이용해 빵을 만든 후 부랑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토요일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약천사 자광원에, 매주 수·목요일은 서귀포기초푸드뱅크에 빵을 정기 기탁하는 날이다. 하루 하루가 기부의 연속인 셈이다.

4년여 동안 기부식품제공사

업장인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기탁한 빵은 무려 2만여개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500만원 어치에 이른다.

이렇게 기탁한 빵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저소득층에게 전달된다.

그는 30여년 간의 제빵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능 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다.

2005년부터 2년간 서귀포 YMCA에서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나서 시민들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5년 전부터는 매년 10여 곳의 초·중·고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케이크만들기 등 제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십년간 식품기부와 재능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는 우리 시대 나눔의 표상이다.

박 대표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내가 가진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누다보면 기쁨은 배가 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